



외대학보

1996년 12월 2일(월) 제681호

진리 평화 창조

서울 총학 기호 2번 류종렬·이원복조 당선

56.7% 투표율, 360표 차이로 낙승



지난 28일(목) 서울캠퍼스 31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기호 2번 류종렬·이원복조가 당선되었다. '자유를 향한 역습, 그 즐거움은 계속된다'는 구호로 출마했던 이들은 당선 소감에서 '이전 총학생회의 과제를 받아안고 다양한 성과를 인정하며 외대발전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승주 기자

대학원 지역학과 폐쇄 위기

원우회 수업거부 등 집단 투쟁 준비

기존 대학원 지역학과가 지역화 전문대학원 설립과 관련,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97년 3월 설립을 목표로하고 있는 지역화 전문대학원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원은 해당학과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전문대학원으로 존속되며 이후에는 자연 폐지 된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 학생들은 만약의 경우에는 수업거부, 기말논문 제출 거부 등의 집단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사건의 발단은 2주전 대학원 지역학과의 일반 전형 지원자를 둘러보았다는 소문이 대학원생들 사이에 돌면서부터였다.

이에 지난 25일(월)에는 각 지역학과 과대표를 포함한 7명이 모임을 가지고 교학부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98년 대학원 지역학과 폐지될 것'이라 밝혔다.

이에 학생들은 26일(화) 대자보를 부착하고 관련서류 열람장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또한 지난 29일(금) 열린 비대위와 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안방민 총장은 "현 지역학과 대학원생들은 국가의 지원에 대한 혜택은 있지만 기회만은 등등하게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비대위 위원장 송연근(중남미지역학과 석사과정)은 "기존 지역학과를 폐지하는 건 전임교수 하나 없는 상황에서 자체적 세미나 등으로 30년간 쌓아온 학문적 성과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지역학전공대학원 설립을 이유로 일부 대학원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대학당국의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윤정 기자

학부제 난항 계속

전공선택 지원서 접수 거부키로

학부생들의 전공선택권 거부, 이에 맞선 대학당국의 수강신청 연기로 접수 소강상태에 머무르던 학부제투쟁이 대학당국의 학부생 전공선택 지원서 배부 사건과 관련 극한 대립의 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이 사건은 관련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회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 모성훈(인문·사회 4)군은 "대학당국은 학생 측이 투표를 통해 전공선택권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원서를 기재하지 않는 학생은 맘대로 전공을 배정하겠다"며 실시 각 단체 교학회에 배부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각 단체 교학회에 있던 지원서를 전광 수거,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 학생들간의 짙어지는 분위기와 실이 학생들을 허우러려고 했다. 며 "학생축과 일부 단체 학부제 투쟁을 위해 대학당국은 학생에게 학생신고서를 접수해 19일 오전 10시 노동부에 전달했다.

민주노총 정상회 대외협력국장은 "민주노총은 12월 1일 무정부반대포자회의에서 정의행위 친환경투표를 실시해 앞으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근영 기자

지면 안내

10년만의 총파업 임박

노동계의 총파업이 최근에 들어갔다. 이승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개주위 경제위기 등을 문운하며 재계 죽의 입장에 대폭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간내에 총파업을 계획하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일외로 전공선택을 막고자 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관련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회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 모성훈(인문·사회 4)군은 "대학당국은 학생 측이 투표를 통해 전공선택권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원서를 기재하지 않는 학생은 맘대로 전공을 배정하겠다"며 실시 각 단체 교학회에 배부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각 단체 교학회에 있던 지원서를 전광 수거,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 학생들간의 짙어지는 분위기와 실이 학생들을 허우러려고 했다. 며 "학생축과 일부 단체 학부제 투쟁을 위해 대학당국은 학생에게 학생신고서를 접수해 19일 오전 10시 노동부에 전달했다.

민주노총 정상회 대외협력국장은 "민주노총은 12월 1일 무정부반대포자회의에서 정의행위 친환경투표를 실시해 앞으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선거 평가 ······ 3면
총파업을 요구하는 학생들은 학생들을 요구한다. 총학생회의 학생운...

방학 이틀째 보내자 ······ 6면
노동하라! 가로세리! 미친듯이 남을 위해 일해라! 그리고 교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 불허와 같은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그들의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경리해고, 근로과정전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과 같은 새로운 노동법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국민 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9일(화), 20일(수) 경부종합청사 빠여서 '노동법 철폐 및 개악저지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산하조직에서 결의한 정의 발생신고서를 접수해 19일 오전 10시 노동부에 전달했다.

민주노총 정상회 대외협력국장은 "민주노총은 12월 1일 무정부반대포자회의에서 정의행위 친환경투표를 실시해 앞으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와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정부의 의도다?

경쟁 10%, 그 본질은 ······ 9면

노동자와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정부의 의도다?

33회 외대문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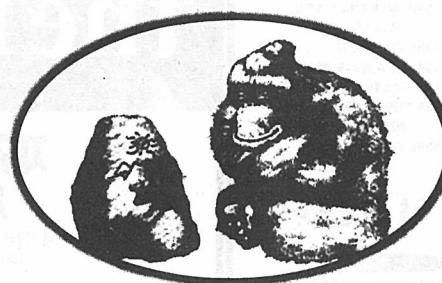
침팬지도 그림을 감상한다?!

● 제13회 외대학술상

모집부문 : 인문·사회·자연과학
분량 : 원고지 80쪽 이상
당선작 : 50만원
가작 : 25만원
마감 : 12월 12일(목)
문의 : 서울 961-4152, 4466
용인 (0335)30-4112

● 제 33회 외대문학상

모집부문 : 시(3편 이상)
소설·시나리오·비평·번역
분량 : 원고지
당선작 : 50만원
가작 : 25만원
마감 : 12월 12일(목)
문의 : 서울 961-4152, 4466
용인 (0335)30-4112



"그림 감상은 특별한 취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표현적 감성입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13회 외대학술상

그렇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

자신의 생각을 글로 담는다는 것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내일의 친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입니다.

당신의 내재된 보편적 감성을 보고싶습니다!!

양캠퍸스 총학생회 선거 평가

학생들의 무관심, 그 냉각기류를 차단하라

한총련·학생회의 공론화 성과로 납아

서울

"전 무효표를 던겼습니다"
도시관 앞에서 만난 한 여학생의 말이다. "선거에 선거에 참여하지만 늘 변하지 않는 것에 실망을 느낌니다"며 "학생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요?"라고 선거 이후 변해야 할 학생회 상을 말한다.

56.7% 투표율을 보인 서울캠퍼스 31대 총학생회 선거가 지난 28일 (목) 기록 2년 만에 뮤종렬(서강·영어 3)·이원복(서방·영교 3)군의 당선을 알리며 막을 내렸다.

'자주주의 주인선언'과 '무능과 독단의 총학생회'라는 화두로 지난 13일(수)부터 보름간 시작된 총학생회 선거는 선거마다 정상화산에 있어서는 예년보다 내용적 성장을 보인 반면,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경고와 1번의 주의 가 나와 좋지 않은 선거의 모습을 남겼다.

□ 동체문화 - 과 소식지

학생회 활동을 과 소식지로 홍보하라

필자와 독자가 일치되는 장점 잘 살려야



많은 사람들이 대학 문화의 특징을 공동체 문화라고 말한다.
이는 소위 대중문화로 일컬어지는 일반사회의 문화와 또 다른 면을 지니고 있다.
대중문화가 개인적인 기호가 풍자 시작되는 문화라면 공동체 문화란 개인적인 기제가 풍자 시작되는 문화인 것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대중가요와 민중가요의 차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혼자서 즐기는 강상용 음악은 전자기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기며 또 때때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소리를 내며 만들어 나가는 음악은 바로 후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어떤 문화가 활

선 더 좋다라고 단정해 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현 사회가 극히 개인적으로 변하고 있고 자 친하게 자유주의를 내세우는 모임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 문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분명한 사실이다.

대학내 공동체 문화를 주구는 수단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가까운 과 활동원을 보자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각과 발행하는 신문과 책자이다.

'바로 보기' (신문방송), 'BERABER' (터키어),

'DEVONA' (독일어교육), '아크비' (아랍어) 등

거의 대부분이 학교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을 담은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지들은 본래 다른 형태의 신문이나 잡지들과 함께 출판되며 또 때때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이런 소식지들은 가장 큰 특징은 필자와 독

자가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고성원들을 더욱 잘 할 수 있는 계기

도 될 수 있다.

박준수(상경·무역) 2군은 "우연히 다른 과 소식지에서 친구가 쓴 글을 본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한테 또 다른 면을 발견한다는 것이 흥미롭다"고 말한다.

또한 영상에 대해 신방과 편집부장 이경민(2·양

은 "교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개함으로써 구성원들

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에서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의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식지로 번호하도록

기획하고 있다"며 "그러나 후자의 경우 그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1년에 두번 정도 발간되는 소식지의 형태로는 그

것이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도 재정적, 인력적 능력이 가능한 과의 경우

방송법 개정 여야 담합우려

방송은 국민의 것… 정권 아닌 공익위해 개정돼야

방송법 개악으로 인해 KBS, MBC, EBS, CBS 방송 등에서 방송노동자를 흥미로운 쪽으로 몰아들이고 있는 것은 이번 제도개선특별법에서 이루어지는 방송법 개정에 맞추어 전국방송노조설립위원회와 이당이 함께 또 정부여당도 각각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이당과 여당은 정치적 담합을 하여 위정의 개정안이 주축이 되는 개악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지난 9월 23일 내 놓은 통합방송법안 중 노조의 반발로 물러나고 다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지되어야 할 공보처의 방송통제기능을 억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대형광고의 날짜에 따른 행정부의 방송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방송위원회의 비만주적인 구성방식이다.

넷째, 제법언론의 폐해를 무시한 재발방지방수율을 하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KBS노조는 “정부조작법 개정에 의해 공보처의 방송에 대한 적부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방송통제권을 광보처장관이 행사하도록 한 점은 과거 독재정권과서서 미친가지로 방송의 경계에 속을 의도한 것으로 부터 볼 수 있다”며 “공보처는 폐지되어야 하며 방송규제권한은 방송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하며, 주요한 법률사항은 방송법에 직접 규정하

고 시행령이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부들이 이 파업을 겪고 있는 것은 이번 제도개선특별법에서 이루어지는 방송법 개정에 맞추어 전국방송노조설립위원회와 이당이 함께 또 정부여당도 각각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이당과 여당은 정치적 담합을 하여 위정의 개정안이 주축이 되는 개악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지난 9월 23일 내 놓은 통합방송법안 중 노조의 반발로 물러나고 다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지되어야 할 공보처의 방송통제기능을 억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대형광고의 날짜에 따른 행정부의 방송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방송위원회의 비만주적인 구성방식이다.

넷째, 제법언론의 폐해를 무시한 재발방지방수율을 하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KBS노조는 “정부조작법 개정에 의해 공보처의 방송에 대한 적부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방송통제권을 광보처장관이 행사하도록 한 점은 과거 독재정권과서서 미친가지로 방송의 경계에 속을 의도한 것으로 부터 볼 수 있다”며 “공보처는 폐지되어야 하며 방송규제권한은 방송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하며, 주요한 법률사항은 방송법에 직접 규정하

고 시행령이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부들이 이 파업을 겪고 있는 것은 이번 제도개선특별법에서 이루어지는 방송법 개정에 맞추어 전국방송노조설립위원회와 이당이 함께 또 정부여당도 각각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이당과 여당은 정치적 담합을 하여 위정의 개정안이 주축이 되는 개악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지난 9월 23일 내 놓은 통합방송법안 중 노조의 반발로 물러나고 다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지되어야 할 공보처의 방송통제기능을 억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대형광고의 날짜에 따른 행정부의 방송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방송위원회의 비만주적인 구성방식이다.

넷째, 제법언론의 폐해를 무시한 재발방지방수율을 하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KBS노조는 “정부조작법 개정에 의해 공보처의 방송에 대한 적부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방송통제권을 광보처장관이 행사하도록 한 점은 과거 독재정권과서서 미친가지로 방송의 경계에 속을 의도한 것으로 부터 볼 수 있다”며 “공보처는 폐지되어야 하며 방송규제권한은 방송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하며, 주요한 법률사항은 방송법에 직접 규정하



전국총학생회 선거 결과 분석

‘단결과 실천’으로 냉소주의 극복해야

공안한파영향, 추상적 구호 낭비

김영삼경권의 ‘한총련 죽이기’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어본이 지배적인 가운데 지난 28일(목)까지 114개 대학의 선거가 마무리 되었다. 한총련 연세대 통일부장, 경인경찰과는 안보경국수에 처리된 이번선거는 사회변혁과 현장권역화를 주장하는 학생운동세력에 대한 대중적 실관의 과정이었다.

이번 선거는 ‘투표율과 학생들의 무관심속에 운동권의 퇴진’ 현상과 무관할 것이다. 하니가 민주화 역할을 막아야 하는 우리의 일입니다.”라고 덧언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방송은 경제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개악을 저지할 것이다.”라고 덧언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방송은 경제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개악을 저지할 것이다.”라고 덧언한 것일지도 모른다.

허윤숙 기자



(11월 29일 14시 현제)에서 학생운동세력이 위기 대처에서 탄생했다. 80% 넘는 대학의 학생들이 정부와 언론이 ‘사회혼란과 이적행위’를 일삼는 혐의로 일관하는 이념·문화를 확산화를 선언한 것이다.

올해 학생회 선거는 민족행장(NLU)계열이 68개 대학, 민중민주(PD)계열이 26개 대학, 비동등권·민중민주(PD)계열이 20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출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행장계열은 작년 대비 80% 이상의 성과를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민족행장계열의 상당수 약화를 불리운 올해 학생회선거는 2학기 내내 대선권의 경쟁을 벌여온 학생회를 선출했다. 특히 벽여행운동본부와 한총련과 함께 협력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학생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민족행장계열의 상당수 약화를 불리운 올해 학생회선거는 2학기 내내 대선권의 경쟁을 벌여온 학생회를 선출했다. 특히 벽여행운동본부와 한총련과 함께 협력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학생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민족행장계열의 상당수 약화를 불리운 올해 학생회선거는 2학기 내내 대선권의 경쟁을 벌여온 학생회를 선출했다. 특히 벽여행운동본부와 한총련과 함께 협력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학생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민족행장계열의 상당수 약화를 불리운 올해 학생회선거는 2학기 내내 대선권의 경쟁을 벌여온 학생회를 선출했다. 특히 벽여행운동본부와 한총련과 함께 협력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학생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민족행장계열의 상당수 약화를 불리운 올해 학생회선거는 2학기 내내 대선권의 경쟁을 벌여온 학생회를 선출했다. 특히 벽여행운동본부와 한총련과 함께 협력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학생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민족행장계열의 상당수 약화를 불리운 올해 학생회선거는 2학기 내내 대선권의 경쟁을 벌여온 학생회를 선출했다. 특히 벽여행운동본부와 한총련과 함께 협력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학생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민족행장계열의 상당수 약화를 불리운 올해 학생회선거는 2학기 내내 대선권의 경쟁을 벌여온 학생회를 선출했다. 특히 벽여행운동본부와 한총련과 함께 협력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학생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민족행장계열의 상당수 약화를 불리운 올해 학생회선거는 2학기 내내 대선권의 경쟁을 벌여온 학생회를 선출했다. 특히 벽여행운동본부와 한총련과 함께 협력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학생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민족행장계열의 상당수 약화를 불리운 올해 학생회선거는 2학기 내내 대선권의 경쟁을 벌여온 학생회를 선출했다. 특히 벽여행운동본부와 한총련과 함께 협력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학생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민족행장계열의 상당수 약화를 불리운 올해 학생회선거는 2학기 내내 대선권의 경쟁을 벌여온 학생회를 선출했다. 특히 벽여행운동본부와 한총련과 함께 협력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학생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민족행장계열의 상당수 약화를 불리운 올해 학생회선거는 2학기 내내 대선권의 경쟁을 벌여온 학생회를 선출했다. 특히 벽여행운동본부와 한총련과 함께 협력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학생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민족행장계열의 상당수 약화를 불리운 올해 학생회선거는 2학기 내내 대선권의 경쟁을 벌여온 학생회를 선출했다. 특히 벽여행운동본부와 한총련과 함께 협력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학생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민족행장계열의 상당수 약화를 불리운 올해 학생회선거는 2학기 내내 대선권의 경쟁을 벌여온 학생회를 선출했다. 특히 벽여행운동본부와 한총련과 함께 협력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학생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민족행장계열의 상당수 약화를 불리운 올해 학생회선거는 2학기 내내 대선권의 경쟁을 벌여온 학생회를 선출했다. 특히 벽여행운동본부와 한총련과 함께 협력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학생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민족행장계열의 상당수 약화를 불리운 올해 학생회선거는 2학기 내내 대선권의 경쟁을 벌여온 학생회를 선출했다. 특히 벽여행운동본부와 한총련과 함께 협력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학생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민족행장계열의 상당수 약화를 불리운 올해 학생회선거는 2학기 내내 대선권의 경쟁을 벌여온 학생회를 선출했다. 특히 벽여행운동본부와 한총련과 함께 협력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학생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KBS노동조합 전영일 위원장을 만나

“방송법 개악 단일노조로 맞설터”

파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파업은 KBS의 경우 12월 2일부터 4일까지 한 번 투표를 하여 하게 될 것이다. 파업을 하게 된다면 KBS, MBC, EBS, CBS 방송 4시간이 개별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물론 현 김영삼 정권에서도 언론 통제와 언론 탄압에 앞장 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부처의 비자체처럼 쟁취하고자 한다.

또, KBS와 MBC는 시장을 임명하는 권리와 보수를 확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노동자를 위한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단일 노조를 건설하려고 한다.

파업결의와 함께 방송단일노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의 배경은

단일 노조건설은 2년전부터 계획되

어 왔다. 그러나 얼마전 한국일보에서 300여명이 정리해고를 당하였다. 이는 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한국방송공사 구조·축소설이 현실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따라서 KBS, MBC, EBS, CBS 방송 4시간은 방송노동자의 권리와 보도의 자율성을 되찾기 위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단일 노조를 건설하려고 한다.

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가 방송법 개정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여야 제도개선위가 ‘여여동수’로 이루어지고 이당은 방송법개정을 통한 불공정 방송의 발생과 대선 승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당 역시 핵심적 사안들을 포기하고 선거권을 국고로 출마하는 데에 만족하는지를 알 수 있다. 역시 방송법 개정을 통해 확보하려면 방송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대항할 수 밖에 없다.

“미군, 물값만이라도 내라”

정부의 한미행협 개정 없다면 계속될 것

글에 따르면 한미FTA에 불과 부당한 처사이며 수도료 인상분 600만원에 대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하남시에 있는 ‘통일읍’에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민족통일 하남연합’ 등 시민·제4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이들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군부대에 항의하는 글과 함께 글을 올렸다. 최근에는 미군부대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수도료 인상과 관련해 성남, 의정부, 광택 등 주민들이 주민부에 있는 지역동문 문제가 발생했지만 환경부와

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부터 불과하다며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민족통일당은 수도료금을 높이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문화가 빨리 해체되기를 바랄뿐이다”라고 밝혔다.

지금 발생한 수도료 문제만이 아니라 민족통일당은 민족행장(NLU)계열 68개 대학, 민중민주(PD)계열 26개 대학, 비동등권·민중민주(PD)계열 20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출해 봤을 때 우수한 성과를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민족행장계열의 상당수 약화를 불리운 올해 학생회선거는 2학기 내내 대선권의 경쟁을 벌여온 학생회를 선출했다. 특히 벽여행운동본부와 한총련과 함께 협력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학생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민족행장계열의 상당수 약화를 불리운 올해 학생회선거는 2학기 내내 대선권의 경쟁을 벌여온 학생회를 선출했다. 특히 벽여행운동본부와 한총련과 함께 협력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학생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민족행장계열의 상당수 약화를 불리운 올해 학생회선거는 2학기 내내 대선권의 경쟁을 벌여온 학생회를 선출했다. 특히 벽여행운동본부와 한총련과 함께 협력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학생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민족행장계열의 상당수 약화를 불리운 올해 학생회선거는 2학기 내내 대선권의 경쟁을 벌여온 학생회를 선출했다. 특히 벽여행운동본부와 한총련과 함께 협력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학생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민족행장계열의 상당수 약화를 불리운 올해 학생회선거는 2학기 내내 대선권의 경쟁을 벌여온 학생회를 선출했다. 특히 벽여행운동본부와 한총련과 함께 협력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학생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민족행장계열의 상당수 약화를 불리운 올해 학생회선거는 2학기 내내 대선권의 경쟁을 벌여온 학생회를 선출했다. 특히 벽여행운동본부와 한총련과 함께 협력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학생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민족행장계열의 상당수 약화를 불리운 올해 학생회선거는 2학기 내내 대선권의 경쟁을 벌여온 학생회를 선출했다. 특히 벽여행운동본부와 한총련과 함께 협력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학생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민족행장계열의 상당수 약화를 불리운 올해 학생회선거는 2학기 내내 대선권의 경쟁을 벌여온 학생회를 선출했다. 특히 벽여행운동본부와 한총련과 함께 협력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학생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민족행장계열의 상당수 약화를 불리운 올해 학생회선거는 2학기 내내 대선권의 경쟁을 벌여온 학생회를 선출했다. 특히 벽여행운동본부와 한총련과 함께 협력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학생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민족행장계열의 상당수 약화를 불리운 올해 학생회선거는 2학기 내내 대선권의 경쟁을 벌여온 학생회를 선출했다. 특히 벽여행운동본부와 한총련과 함께 협력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학생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민족행장계열의 상당수 약화를 불리운 올해 학생회선거는 2학기 내내 대선권의 경쟁을 벌여온 학생회를 선출했다. 특히 벽여행운동본부와 한총련과 함께 협력해 끊임없이 활동해온 학생회들이 차지한 것에 비해 디노·부진우·칠레를 드러냈다. 반면에 지난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PD계열과 비동등권의 당선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44년: PD계열 36%, 비동등권 21%).

‘칼라 다큐멘터리!’

미술작가 홍재, 대표작 『미술작가 홍재』, 2001년 10월 20일 개막!

미술작가 홍재 개인전

교육개방, 그 소리없는 총성 ⑤ 교육개방, 이렇게 대처하라

주체성만 있으면 교육개방 안무섭다

개방일정 지연·과감한 교육투자로 경쟁력 길러야

글 싣는 순서

1. 밀려드는 교육개방 피고...
- 그 실체
2. 예상되는 진출영역, 계열, 나라
- 그 현장을 찾아
3. 지상논란
- 불붙는 교육개방 찬·반 논쟁
4. 설문조사·외대생,
- 교육개방 이렇게 생각한다
5. 교육개방,
- 이렇게 대처하라

교육개방의 일정을 발표하면서 교육부는 수준높은 외국 대학의 국내진입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검증기준을 어디에 들것이며 외국 저질대학의 국내진입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국내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도입해 학점과 학위를 남발하는 사태를 또 이어갈 것인가.

교육부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개방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2~3년 사이에 원전방으로는 스케줄을 세지 해놓고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피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심각하게 재기되어 있는 한국인에게. 정신은 외국인에게 받는 문화적 기형이 아니라, 즉 무국적 세대를 임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과연 이렇듯 교육부는 젊은이들이

5천년동안 지켜온 민족의 혼을 보존할 수 있을까. 감안한 푸른으로 국제경쟁에서 이기며 선진국으로 기는 경쟁력을 기울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나약한 합류주의로 무장한 사람들은 양심함으로써 현재 우리사회

의 상황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폐쇄적인 인

기주의 집단으로 더욱 확대해지는 않을까.

민족교육이 교육개방이라는 시련앞에 생사의 길길길에 놓인 지금, 교육개방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알아보자.

편집자

개방시기 최대한 유보해야 적정시기는 10년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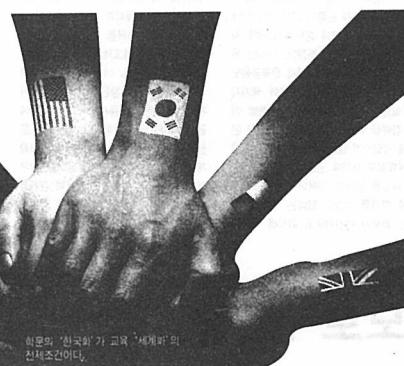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개방시기를 최대한 유보하는 것이다. 세계가 하나님의 시장으로 뻔한 상황에서 개방을 거부하 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대학교수처럼 국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지금 당장 교육 분야를 개방할 경우 우리나라 교육은 세계화를 거칠 때마다 물력을 초래할 것이 불보듯 한눈에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교육기관의 국제경쟁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개방시기를 유보해야 한다.

직접한 유보시기는 10년정도가 바람직하다. 개방을 요구하는 자본주의 선진국과 비교방법을 주장하는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 사이의 침화에 대립을 결론하는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의 유

예기간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점을 고려할 때 10년의 유보기간은 한국정부의 노력여력에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개방시기를 유보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다른 서비스산업과는 달리 인재육성을 위한 국가적 사업으로 비교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교육을 상품화해 상업적 영역으로 수단으로 간주하는 발달세대가 우리 국민에게는 커다란 혼란과 길음을 유발할 것이라면 점도 주지시키어야 한다. 또한 국내 교육계의 기반이 더뎌지지 않아 자본주의 선진국과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국 내 교육기관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질 때까지 개방시기를 유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개방 유예기간 확보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협상을 암한다면 10년간의 개방유예기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협상당사국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협상체제를 거부하겠다는 각오와 비비아 한다. 그렇게 하면 자본주의 선진국은 양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직접한 유보시기는 10년정도가 바람직하다. 개방을 요구하는 자본주의 선진국과 비교방법을 주장하는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 사이의 침화에 대립을 결론하는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의 유



한국의 '한국화'가 교육 '세계화'의 진짜조건이다.

질에 대한 관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법규를 개정해 외국 고등교육기관이 학원형태로 국내에 진출해 학생모집 및 교육행위를 하는 권법행위를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고등교육기관이 국내 교육관계법에 규정된 교육시설 및 재정, 교수수원 확보 및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행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교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폐지 또는 휴업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학생회간 고등교육부인간 교수

또는 강사의 유보를 반드시 내국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외국 고등교육기관인지도 일정 비율 이상의 국책 교과 및 한국어 교과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의 강의를 한 국어로 교육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학문의 '한국화'가 교육의 '세계화'

개방에 앞서 우리나라 고교와 대학전에 균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학문의 주체성 확립이다. 현대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외국인으로 일부 전문가를 받고 온

인식하에서 선진국에서 학위를 받고 온

교수들의 지식소개가 주제를 이루고 있

다. 그 주제는 대학에서 외국문화의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전문에 걸쳐 무조건

외국을 모방하고 현란한 서구 문화를

속에 국가발달에 역사를 알게 했다.

이런 상태에서 교육개방을 그대로 허용

할 경우 학문과 국가발달의 주제는 뿐

아니라 학제적 주제로 전환되게 된다.

이렇게 하면 학문의 주제는 그 자체로

교육기관의 영향으로 일정화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일본, 프랑스, 뱃기, 스위스, 밀라네이아 등에서 전출

해있는 미국대학 분교나 연합대학, 각종

전문학교 및 학원 등의 전출사례를 통해

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학원형태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 고등

교육기관의 경우는 학교법인이나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나

이유로 대학원이나 학부인원이 아닌 본

교수를 허용하는 학제적 주제로 전환되

되는 경우 학문과 국가발달의 주제는 뿐

아니라 학제적 주제로 전환되게 된다.

이제 우리 교육은 또다시 정치논리로

든 세계화 경향으로 심각한 시련을 맞

고 있다. 정부는 개방정책을 기급적 늦

추고 교육의 주체성 확보에 우선적인 노

력을 해야 한다. 다음 교육부를 과감히

늘려 학문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교

육은 국기문명을 좌우하는 공의사업으

로 재창부수 우선순위에서 무었보다 앞

서기에.

김 삼 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후들리는 소문

○…제외대 학생 자부상들이 선거법 개정 회의를 하여 외대 학생들을 사내에서 선거권을 보았다. 여기에 그로 인해 회의에 찾아가 보았다.

상경대 학생 지부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거권과 공시료를 6개월에

서 4개월로 경제적으로 고민이 한다

다. 법제 학생 지부장: 맞습니다. 법적

안정을 위해서도 그에게 하여 우리

의 위치를 굳건히 해야 합니다.

그 후들리는 소문. 그 이후 외대발

전이 후들렸다?

〈경〉

○…우리나라 날치기 역사.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된 융성상(?) 있는 자

랑한 국부에서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세

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민족의 것.

대학에서도 선거권을 이용해 학부제

전공과 지원자를 배부하는 것.

이제 관리된 대학당국 말, '이를 계

기로 더욱 앞서가는 국제대학이 될

것'이라고 앞서가는 국제화다?

〈화〉

○… 옛날에 주민과 하인들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여자 하인들이 "한 달에 한 번 배가 아파서 하루만 쉬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주인 "그 걸비에 너는 영원히 쉬어라"며 쫓아냈다.

또 주인은 다른 하인에게는 밤 늦게 까지 일을 시키고도 삽질 차주 않았다. 보다 못한 옆집 삼순이가 "주인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주인은 제 3자기 개입한다고 옥에 가두었다.

〈일〉

○…한국당국이 높고 있었다. 그런 대학원이 있다. 대학원에는 공부도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 있는데 학교는 불신성한 이었다. 공부에 자신이 없는 학생은 여태까지 관심도 없는 학원이나 친한 척하며 시험을 치러 해준다. 이런 학생들에게 그대로 허용

할 경우 학문과 국가발달의 주제는 뿐

아니라 학제적 주제로 전환되게 된다.

이제 우리 교육은 또다시 정치논리로

든 세계화 경향으로 심각한 시련을 맞

고 있다. 정부는 개방정책을 기급적 늦

추고 교육의 주체성 확보에 우선적인 노

력을 해야 한다. 다음 교육부를 과감히

늘려 학문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교

육은 국기문명을 좌우하는 공의사업으

로 재창부수 우선순위에서 무었보다 앞

서기에.

버림받은 대학원이

비둘기 칠판

제 9회 서빈아이과 사회과학회 심포지움
'북한국은 자본주의'가 열립니다.

주제: 북한체제에 대한
미르크스와 이데올로기적 분석

때: 12월 3일(화) 늦은 5시
곳: 대학원 6104호

(서빈아이과 학생회)

• 중국어과 제 3회 영화제가 열립니다.
때: 12월 2일(금), 3일(화) 늦은 5시

- 옥보단, 이경진

12월 4일(수) 12시부터 늦은 5시

- 주른 연, 희봉인생, 노랑구소

곳: 대학원 6201호

(중국어과 학생회)

• 강철 터이카과의 내년을 짚어질

과회장 선거가 12월 4일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합니다.

(중국어과 학생회)

수고했습니다

• 작은 실천을 소중히 하는 터이카과
민중가요 노래와 터틀링의 첫공연이
성황리에 끝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 95학년 김용현 학생의 아립아과 회장
당선을 축하합니다.
97년도 힘차게 이름이 갑니다.

(아립아과 학생회)

• 97년도 독일아과 학생회장으로 선출된
홍성준(35) 학생에게 무지무지한
축하를 보냅니다.

(독일아과 학생회)

왕 산 글

알립니다

• 택견을 아십니까? 원산의 택견 지킴이가
되십시오.

곳: 학생회관 208호 (446)

(蕙터)

•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떤가?

예배가 매주 열립니다.

때: 목요일 늦은 5시 30분

곳: 공학관 303호

연락처: (035)39-0939

(CBA)

•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등 문화회가 있습니다.

때: 12월 22일(일) 늦은 4시 30분

곳: 청담동 리비라도호텔 3층 백제관
(신관 1층)

회비: 25,000원

후원: 한민인 EVENTECH

문의: (02) 516-7893, 4

제외대 외국어고고증

〈자기이 그리운 이〉

• 무크 기자 빙자갑을 찾습니다. 현금은 물론으

로 쓰시구요. 제발 지갑과 신분증이 있어야

려주시십시오. 저의 대학입학 선물입니다. 습니다

신 분께서는 수고스럽겠지만 학보사나 시화과

로 연락주세요.

연락처: 012-904-8636

〈자기이 그리운 이〉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5)30-4112

대학단신

서울

용인

태국어과 사회봉사동아리 일호포

사회봉사동아리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지난 29일(금) 시설 복지 기금마련을 위한 일호포를 개최했다.

작년에 생긴 봉사동아리인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지난 해 장애인들을 위한 기금마련을 펼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이와 관련 김세운(대학원 2)군은 "아직도 우리나라

는 잘사는 것 같지만 사회봉사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다"며 "꼭 동아리 친구들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으로도 사회봉사를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